

'그 대(竹)' 생각에 흠뻑 빠져 드는 감미로운 산책길

에세이

주현진

시인·수필가
광주문인협회 이사



질은 나무 그늘 아래로 스치는 바람이 시원하다. 맑고 깊은 개울가에 담긴 발 끝도 상쾌하다. 어느 때 보다도 정다운 여름이다. 길은 떠나는 자를 위해서 열리고 행복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 찾아 온다고 했다. 잠시 숨고르기도 할 겸 재충전을 위해 모처럼 친구들과 함께 자연 그대로의 향기가 가득한 담양 수목길을 다녀왔다. 누구에게나 추억의 장소는 한두 곳 있다. 그 대상은 술집도 되고 밥집도 되고 또 어느 특정 지역도 된다. 나에게 누군가가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을 묻는다면 담양이라고 말하고 싶다. 담양에는 명품 숲길이 많다. 죽향이 키워 낸 대숲길과 하늘을 향해 치솟는 메타세쿼이아, 관방제림, 죽녹원같은 힐링 트렌드에 딱 맞는 웰빙 휴식처다.

먼저 대나무골 테마공원으로 향했다. 처음 가는 곳이다.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에 8만여㎡로 조성된 대숲이다. 담양읍에서 순창군 쪽으로 6km가량 떨어진 곳에 비밀의 화원처럼 숨겨져 있다. 언론인이자 사진작가였던 고(故)신복진 씨가 고향 땅을 사들인 뒤 20여 년 동안 대나무를 심고 가꿨다. 개인적으로도 같은 그룹사에서 근무했던 인연으로 평소 애 존경한 선배다. 30년, 40년 자란 울창한 대나무 숲 사이로 난 길의 호젓함을

일품이다. 대숲과 연결된 소나무 숲길에서는 송림욕도 즐길 수 있다. 대숲 사이로 난 산책길도 멋스럽다. 길에 대 이파리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대숲길은 울창한 소나무 숲길로 이어진다. 솔향도 진하게 묻어난다. 솔숲에 춘란도 여기저기 보인다. 죽림욕과 송림욕을 번갈아 즐기는 재미가 쏠쏠하다. 길 옆 정자도 운치가 있고 자판기의 음료커피에 맘을 식히는 멋과 맛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다. 이곳은 대숲과 솔숲, 다시 대숲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풍광 덕분에 일찍부터 영화나 광고 촬영지로 많이 이용됐다. '여름 향기'나 '청풍명월' '흑수선' '전설의 고향' 등을 여기서 찍었다. 눈과 귀가 깨끗하게 씻기는 느낌이며 마음까지 청아해진다. 죽(竹)여 주는 대밭이다.

대나무 숲 테마공원에서 나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걸었다. 나무가 하늘로 쭉쭉 뻗어 시원스럽다. 흡사 숲속의 동굴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이파리를 쥐어짜면 금방이라도 초록물이 묻어날 것 같다.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고 흙을 깔 것도 반갑다. 자전거도 다니지 않아 맘 놓고 거닐 수 있다. 마음의 찌든 때와 눈의 피로를 씻기에 그만이다. 이곳은 산림청이 '가장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선정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1000원씩 유료화 했음에도 올해 6월까지 16만명 넘게 다녀갔다고 한다. 노점에서 식사대용으로 먹는 손편빵맛도 있을 수가 없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은 관방제림 숲길로 이어진다. 관방제림은 풍수피해

를 막기 위해 천변에 늘어선 고목들의 고즈넉한 모습은 메타세쿼이아와는 또 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조선인조 28년인 1648년 담양 부사 성이성이 담양천 북쪽 천변에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은 것이 시초다. 담양 읍내를 가로지르는 1.2km 구간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있다. 천변 숲길은 사철 아름답다. 봄엔 신록으로, 가을이면 낙엽으로, 겨울에는 적막감도는 호젓함으로 유혹한다. 이맘때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선사한다.

관방제림에서 죽녹원으로 가서 대숲 길을 걸었다. 지친 삶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는 대숲이다. 너른 땅에 곳곳이 선 대숲은 한 여름에도 상쾌하다. 사랑이 변치 않는 길, 운수 대통길 등 색다른 이름의 산책로도 정겹다. 대숲에서 뿜어내는 인공분수의 물줄기도 시원하다. 한 낮의 뉘앙스가 맥을 못추고 사라진다. 기념품 가게에서 부채를 하나 샀다. 요즘처럼 무더울땐 부채는 좋은 길벗이 된다. 부채에도 재밌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지여 죽이상혼(紙與竹而相婚)" 하니 "생기자 월청풍(生基子月淸風)"이라. 이는 '종이와 대나무가 혼인'을 해서 '태어난 자식은 맑은 바람'이라는 말이다.

관방제림 주변 천변에는 이곳의 명물인 막국수집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담양의 떡갈비, 대동밥도 유명하지만 멀지 않은 국물에 칼국수 가락을 맡아 먹는 맛은 일품 중에 일품이다. 국수 먹기 전에 찌 계란을 먹는 맛도 그만이다. 우리 땅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명품 숲길의 종합세트다. 꾸밈처럼 보드랍고 황홀하다. '그 대(竹)' 생각에 흠뻑 빠져 수 있는 감미로운 하루였다.

社說

분열·마타도어...떨어보이는 민주당 혁신

이낙연 귀국 친명·친낙 논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귀국하면서 민주당에 논란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우회적으로 정치적 역할을 시사하면서 친 이낙연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반면, 여기에 대응하는 친 이재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총선을 불과 9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언급처럼 '백지장도 맞들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작금에 보이는 민주당의 혼돈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 전 대표는 귀국 이후 서울 종로에 사무실 계약을 마치는 등 정치계에 복귀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여기에 맞춰 지난 26일에는 운영찬 의원이 이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자신의 각오,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복귀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개호 의원은 '어떤 식으로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표현'이라며 이 전 대표를 두둔하고 나섰다. 신경민 전 의원은 '이낙연 악마화'를 언급하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달리 친 이재명계는 이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27일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성찰이 먼저'라며 이 전 대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낙연을 선택의 조건 없이 버려야 한다'는 등의 마타도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쪽과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이 극명하게 나뉘어 불협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민주당 온라인 당원게시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등 여당의 실정에도 지지율 하락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도 민주당에게는 악재다. 진보의 가치는 '정의'에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일사불란한 단결은 아니더라도 분열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비난과 비판도 분명 다른 의미다.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백지장도 맞들겠다'는 각오로 화합하고 목소리를 결집시켜야 한다. 그것이 공당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다.

광주 위기아동 3천명...공적보호 강화를

허점 투성이 e아동행복지원

지난 22일 발표된 감사원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의료기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은 광주 46명·전남 98명 등 총 14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신고 아동은 높은 확률로 학대와 직결되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다. 그러나 발굴이 쉽지 않기에 더욱 각별한 조사와 빈틈 없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당장 얼마 전 터진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이 바로 그런 학대의 참혹한 결과물이다.

물론 정부의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주 큰 허점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분류된 광주지역 위기아동은 매년 30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각 자치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조

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단된 아동은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1분기 0명이다. 이마저도 '학대'로 판단돼 경찰이나 보호기관에 연계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말 광주는 아동학대가 없는가. 아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 등 신고를 통해 발굴·관리하고 있는 아동학대사례만도 매년 수백 건에 달한다.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잔극인가.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은 학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찰 등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데이터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 100번 물러나 예방을 위한 것이니 학대를 밝혀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다 싶다. 허나 지금 광주시의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은 기관 간 정보 공유나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지, 또 미신고 아동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심히 궁금하다. 전남은 또 어떠한가. 어른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명심해줄길 간곡히 부탁한다. 정부가 못하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사진으로 보는 세상

26일(현지시각)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포트의 프라임펜 로드 인근 가정집에 추락한 경비행기 잔해가 널브러져 있다. 경찰은 해안의 한 공항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가정집에 단발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으며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사히 탈출했다고 밝혔다. 사우스포트=AP/뉴스시스

서석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옛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 출신이다. 소련 정보기관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KGB는 소련 붕괴 후 연방보안국(FSB)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다. KGB가 되기를 꿈꾸며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푸틴은 KGB에 들어간 뒤 제1총국 소속으로 동독 드레스덴에 파견된다. 비밀경찰 슈타지와 러시아 사이의 연락책이 그의 임무였다. 불법으로 정적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과 결탁할 세력을 키우는 것도 그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었다.

독재자 푸틴의 몰락

러시아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위기에 내몰렸다. 프리고진이 철수한 뒤 27일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의 건재를 주장했지만 푸틴의 리더십은 이미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다. 레닌그라드의 불량야에서 크렘린의 1인자에 오른 푸틴의 일생은 무법과 암살, 테러의 연속이었다. '푸틴의 러시아'를 쓴 커닝엄은 푸틴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한 인물이 아니라 망상가이면서 독재자일 뿐."이라고 했다. 자신이 키워낸 최 측근도 믿지 못하는 망상가, 러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공포에 내몰았던 독재자 푸틴의 몰락이 이렇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